

이러한 세계적 조류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러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기본적 틀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추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세계화만을 추구한다면 지역은 세계시장에 잠식당하고 오로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만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방화만을 추구한다면 북한과 같이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겠다’는 국수주의에 빠져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

체가 추구해야 하는 숙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경제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했던 것과 비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 가치가 중앙의 규범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세계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요 꿈이다. 🍄

